李滉의 修養論**

-「聖學十圖」와 敬을 중심으로-

李 海 英*

● 目 次 ●

Ⅰ. 머리말
Ⅱ. 心與理一
Ⅲ. 聖學十圖와 敬
Ⅳ. 맺음말

Ⅰ. 머리말

이황 학문의 특성을 그가 理를 중심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理의 철학이라고도 하고, 경의 수양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敬의 철학이라고도 부르며 최근에는 그의 학문을 心學으로 보고 이를 양명의 본체론적 心學과 구별하기 위해 治心之學, 敬心學, 持敬心學이라고 규정하기도 한다.[1] 그런데 治心이라든가, 敬, 持敬이란 모두 마음의 수양을 나타내는 말이다. 치심이란 바로 마음의 수양이며, 경 지경은 모두 마음가짐새, 마음의 수양 목표와 수양 방법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황의 학문이 주자학의 두 축인 존재와 주체에 대한 이론 가운데에서 인간 주체 문제에 보다 비중을 두고 있다는 것은 두루 아는 사실이다. 그의 학문은 인간의 주체의 학문이며, 따라서 인간의 주체를 어떻

* 안동대 동양철학과 교수
** 안동대 퇴계학 연구소,『퇴계학』제7호(1995) 게재논문
1) 안병주, 퇴계심학과 미래사회, 제14회 퇴계학 국제학술회의 발표문, 1996참조.

게 체득할 것인가, 또 그것을 어떻게 실천하고 구현할 것인가에 목표를 두고 있다. 그는 그 목표의 궁극처를 心과 理가 하나가 되어 나의 주체가 완전하게 체득되고 실천되는 心與理一의 경지로 이해하고 있다.

Ⅱ. 心與理一

> 道體는 우리들 일상 생활의 응수하는 사이에도 유행하는 것이어서 잠시도 멈추거나 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에 期必하지도 말고, 잊어버리지도 말며, 털끝만큼의 안배도 하지 말고, 조장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이렇게 한 연후에라야 마음과 理가 하나가 되고, 나에게 있는 도체가 결함도 없고 막힘도 없을 것입니다.[2)]

이는 바로 마음의 수양을 이루는 시공간적 상황, 방법[3)], 그리고 궁극적 목표를 말한다. 수양의 궁극적 목표는 심과 리가 하나가 되는 것인데, 이는 바로 내 안에 있는 주체가 완전하게 체득되고 또한 일상의 현실속에서 나의 주체가 끊임없이 실천되고 구현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心與理一의 경지는 다음의 세가지로 구분하여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純善한 주체인 心 속의 理가 자발적 능동성을 지니고 氣를 이끌어가는 것, 즉 도덕적 측면에서의 心與理一로 이는 四端七情論에서 理發而氣隨之로 드러난다. 둘째, 格物窮理論에서의 心與理一로 주체인 心 속의 理와 외부 사물의 理가 역동적으로 만나 이루어지는 理到의 경지. 셋째, 각성된 주체인 심의 우주적 전개로서의 參天地之化育의 경지인 天人合一의 경지로 표현되는 心與理一의 경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물론 이 세가지 모두는 持敬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그런데 주체인 마음

---

2) 『退溪全書』, 卷25, 答鄭子中別紙 : 道體流行於日用應酬之間, 無有頃刻停息, 故必有事而勿忘, 不容毫髮安排, 故須勿正與助長, 然後心與理一, 而道體之在我者, 無虧欠無壅遏矣. 이하 권만 표시한다.

3) 이 방법은 이 논문에서는 다루지 않으나 바로 持敬의 방법이다.

의 도덕적 발현, 격물궁리적 측면에서의 실현, 궁극적으로 우주적 전개로 이루어지는 보편적 실현 등이 이루어지는 근거는 무엇인가.

> 무릇 心을 말할 때에는 진실로 方寸을 주로하여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 體와 用은 온몸에 가득하고 천지에 가득찬다. 진서산은 방촌에 수렴하면 태극이 몸안에 있게 되고, 만사에 흩뜨리면 그 쓰임이 무궁하다고 했으니, 마땅히 이와 같이 活看하여야 하고 단지 한 덩어리의 혈육의 심으로 인식하면 안된다.[4]

> 사람이 날 때에 모두 天地의 氣를 받아서 人體가 되고, 天地의 理를 받아서 人性이 되며, 理와 氣가 모여서 心이 되므로 한 사람의 마음이 곧 천지의 마음이요, 한 사람의 마음이 곧 모든 사람의 마음이니 애당초 內外 彼此의 차이가 없다.[5]

위의 인용문에서 알 수 있듯이 이황에 있어 心이란 단지 血肉之心이 아니다. 理氣의 合으로 이루어진 心이란 사실은 천지의 理와 氣를 받아서 이루어진 것이어서 모든 인간, 천지에 이르기까지 보편적 확대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인간이 천지의 리와 기를 받아 이루어지고 인간의 마음이 이기의 합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궁극적으로 天人合一이라는 우주적·보편적 확대를 가능하게 하고 나의 주체가 천지의 화육에 참여하는 근거지만 氣가 지니는 속성, 즉 기의 차별성, 선악의 가능성 때문에 인간의 마음이 그 자체 그대로 주체가 되어 바로 인간 사회에 실천되고, 우주적 확대로 전개되어 가는 것은 아니다. 즉 마음의 사회적 실천, 우주적 확대는 심과 리가 하나가 되는, 즉 나의 주체인 내안의 理가 체득되고 능동적으로 실천되는 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

4) 卷29, 答金而靜 : 凡言心固皆主方寸而言, 然其體其用滿腔子彌六合, 眞西山所謂斂之方寸, 太極在躬, 散之萬事, 其用無窮, 當如此活看, 不可只認一塊血肉之心也.

5) 卷18, 答奇明彦論改心統性情圖 : 夫人之生也, 同得天地之氣以爲體, 同得天地之理以爲性, 理氣合則爲心, 故一人之心卽天地之心, 一己之心卽千萬人之心, 初無內外彼此之有異.

이다. 그것은 理가 지니는 능동성·보편성 때문임은 물론이다. 그런데 보편적 理의 확대라고 하여도 氣를 배제하고는 주체가 실천되거나 우주로 확대되어 천지의 화육에 참여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心與理一을 주체인 理가 능동적 주도적으로 움직여 기를 이끌어 간다는 뜻으로 이해해야 한다.

心과 理가 하나가 된다는 것은 心이 理氣之合으로 규정되는 한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理와 氣는 이황의 이론 체계 속에서는 결코 하나가 될 수 없는 不相雜의 관계이기 때문이다.

한편 心이 理와 氣의 合이라는 것은 바로 心이 理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차별적이며 악으로 흘러갈 수도 있는 氣의 문제를 적절히 처리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점을 시사한다. 심과 리가 하나가 되기 위하여는 심과 리가 하나가 되는 데에 장애가 될 수도 있는 기의 욕구를 차단해야 하는 것이다. 그것은 바로 심 안에 내재한 천리의 보편성을 체득하는 일이었고, 동시에 주체의 주재력을 확보하는 길이었다. 주체가 주재력을 확보하여 氣를 이끌어가는 心與理一의 경지를 이루어 주체를 완전하게 보존하고 체득하며 그것을 현실에 바르게 실천할 수 있기 위하여는 마음의 수양이 필요하였다. 수양의 대상은 물론 理氣의 合인 인간이었고 인간이 응축되어진 心이었다.

Ⅲ. 聖學十圖와 敬

유학의 특징은 내 안에서 나의 주체를 체인하고 그 주체를 내가 살아가는 현실에서 능동적으로 실천 구현하고자 하는 데 있다. 나의 주체가 구현된 사람이 聖人이고 주체를 구현하는 학문이 聖學이었다. 이황의 학문도 그러한 유학적 전통의 충실한 계승선상에 있다. 이황의 학문은 방대한 영역에 걸쳐 있지만 그의 학문이 가장 잘 요약되어진 내용으로 「聖學十圖箚」와 『聖學十圖』가 있다. 성학십도차와 십도가 心의 수양 목

표이자 방법인 敬으로 일관되어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3-1. 思와 學

『聖學十圖』는 이황이 최 만년인 68세 때 선조에게 聖學(聖王의 學問이자 聖人의 學問이다)에 관하여 올린 글과 도이다. 이 글과 도에는 이황의 주체와 그 수양에 관한 학문이 결집되어 있다. 그는 성학십도와 도설이 聖學의 단서, 心法의 지극한 요령으로 옛 현인 군자가 성학을 밝히고 심법을 얻기 위하여 고심한 결과물에 본인이 그것을 참조하여 만든 것을 보탠 것이라고 하였다.[6]

그는 우선 성학을 밝히고 심법을 얻기 위하여는 마음이 밝게 생각함이 필요하다고 『맹자』의 '思'와 『서경』의 「홍범」의 '叡'라는 내용을 빌어 진술하였다. 그런데 그는 마음의 밝게 생각하는 작용은 마음의 체가 허령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리하여 나의 주체인 심체의 허령함을 (敬으로) 주재하여 밝게 생각하면 객관대상의 리가 밝게 비추어져 이르게 된다고 한다.[7] 이는 격물궁리에 있어서의 心與理一로 이황의 理到說과 연관된다.[8]

이처럼 이황은 마음의 수양을 중심으로 한 주체의 체득을 강조하였다. 그는 이어 공자의 '배우고 생각하지 않으면 어둡고, 생각만 하고 배우지 않으면 위태하다'고 한 말을 인용하고 배운다는 것은 '그 일을

---

6) 卷7, 聖學十圖箚 참조.

7) 卷7, 進聖學十圖箚 :夫心具於方寸, 而至虛至靈, 理著於圖書, 而至顯至實, 而至虛至靈之心, 求至顯至實之理, 宜無有不得者, 則思而得之, 睿而作聖, 豈不足以有徵於 今日乎? 然而心之虛靈, 若無以主宰, 則事當前而不思, 理之顯實, 若無以照管, 則目相接而不見, 此又因圖 致思之不可忽焉者然也.

8) 拙稿, 李滉 理發說의 意味論的 考察, 퇴계학보 80집, 퇴계학연구원, 1993 149~151쪽 참조: 이황은 格物이 되고 나면 理는 自到한다고 하였다. 그 이유는 심의 리와 사물의 리는 같은 것이고 一人의 심은 天地의 심이기 때문이다. 또한 나의 주체가 실현되는 장은 객관사물(의 理)과 만나는 장이 되기 때문이다. 그 만남은 나의 주체가 일방적으로 窮至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내가 窮至하여 이르면 사물의 리가 스스로 발현하여 대응하여 온다는 것이다. 이는 내마음의 본체, 즉 주체와 사물의 이치의 역동적인 만남이 된다.

익히어 참으로 실천하는 것'을 이르는 것이라 하였다. 따라서 진정한 성학이란 단지 주체의 체득이 아니라 그것을 실천하여 진정으로 나 자신, 현실의 세계, 나아가 궁극적으로는 우주적 실현까지를 이루어 천인합일 해야 하는 것이었다. 思로서의 주체의 체득과 學으로서의 그 배움과 실천은 상호 발명하는 관계이어야 한다는 것이다.[9] 이 주체의 체득과 실천의 상호발명의 관계는 성학십도의 내용을 구성하는 주요한 이론이 된다.

그런데 성학이라고 하는 주체의 학문 방법으로서의 學과 思를 관통하는 것은 敬의 마음가짐새를 지니는 것, 즉 持敬이다. 경의 가짐새를 지니는 것이야말로 思와 學을 겸하며, 動靜을 일관하고, 內外를 합하며, 드러남과 은미함을 하나로 하는 길이다. 그러므로 성학을 이루기 위하여는, 즉 성인이 되기 위하여는 持敬을 해야 하는 것이다. 성학을 이루기 위하여는 반드시 이 마음을 경의 태도를 지님으로 해서 장중하게 가다듬고 조용히 하나에 집중하여야 한다. 나아가 이 (마음의) 리를 학문사변하는 사이에 궁구하여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는 心의 未發의 상태에서는 마음에 대한 戒懼를 더욱 엄하게 하고 공경스럽게 하며, 隱微하고 幽獨한 心의 已發의 상태에서는 마음의 기미에 대한 성찰을 더욱 정밀하게 하고 마음을 하나로 집중해야 한다.[10]

그리하여 敬으로써 學과 思를 일상생활 가운데서 매일 매일 끊임없이 자신을 가지고 계속하여 참됨이 많이 쌓이고 노력이 오래되면 자연히 심과 리가 서로 함양하여(마음에서 주체인 리를 체득하여)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융화되어 통하게 된다. 그리고 주체의 학습에 의하여 실천이 익숙해져서 차츰 모든 행동이 순탄하고 자연스럽게 될 것이다. 처음에

9) 卷7, 進聖學十圖箚 : 孔子曰學而不思則罔, 思而不學則殆, 學也者, 習其事而眞踐履之謂也. 蓋聖門之學, 不求諸心, 則昏而無得, 故必思以通其微, 不習其事, 則危而不安, 故必學以踐其實, 思與學, 交相發而互相益也.

10) 卷7, 進聖學十圖箚 : 伏願 聖明, 心燭此理, 先須立志, 以爲舜何人也, 予何人也, 有爲者亦若是, 奮然用力於二者之功, 而持敬者, 又所以兼思學貫動靜合內外一顯微之道也. 其爲之之法, 必也存此心於齊莊精一之中, 窮此理於學問思辨之際, 不睹不聞之前, 所以戒懼者, 愈嚴愈敬, 隱微幽獨之處, 所以省察者, 惟精惟一.

는 각각 하나 하나에 전일하지만 나중에는 이처럼 전체가 하나로 합하여지게 된다. 이는 맹자의 '深造自得'의 경지이며 그리하여 '그만 둘래야 그만 둘 수 없는 체험'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이황이 생각하는 心與理一의 세계이자 주체의 체득인 것이다. 주체의 체득을 이루고 나아가 계속 노력하면 顔子의 인을 어기지 않는 마음, 치국의 사업, 曾子의 일관된 충서, 전도의 책임을 스스로 이룰 수 있으며, 더 나아가서 일상생활에서 敬畏를 미루어 中和 位育의 공을 이루어 주체가 天地의 化育에 참여하고 덕행의 떳떳함을 벗어나지 않아 주체의 天人合一이라는 우주적 확장을 이루어낼 수 있는 것이다.[11]

3-2. 聖學十圖와 敬

이황은 『聖學十圖』를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구분방법으로 나누었다. 하나는 구성상의 구분으로 십도를 두 단락으로 나누었다. 이황은 제1도에서 5도까지를 한 단락으로 보고, 6도에서 10도까지를 한 단락으로 본다. 그는 제5도 백록동규도의 말미에 '이상의 다섯 도는 천도에 근본한 것인데 功은 인륜을 밝히고 덕업에 힘쓰는 데 있다.'[12]고 하였다. 즉 앞의 다섯 도의 목적은 인간의 도덕을 밝히기 위하여 그 존재론적

11) 卷7, 進聖學十圖箚 : 伏願 聖明, 心燭此理, 先須立志, 以爲舜何人也, 予何人也, 有爲者亦若是, 奮然用力於二者之功, 而持敬者, 又所以兼思學貫動靜合內外一顯微之道也. 其爲之之法, 必也存此心於齊莊精一之中, 窮此理於學問思辨之際, 不睹不聞之前, 所以戒懼者, 愈嚴愈敬, 隱微幽獨之處, 所以省察者, 惟精惟一, 就一圖而思, 則當專一於此圖, 而如不知有他圖, 就一事而習, 則當專一於此事, 而如不知有他事, 朝焉夕焉而有常, 今日明日而相續, 或紬繹玩味於夜氣淸明之時, 或體驗裁培於日用酬酌之際, 其初有未免或有掣肘矛盾之患, 亦時有極辛苦不快活之病, 此乃古人所謂將大進之幾, 亦爲好消息之端, 切毋因此而自沮, 尤當自信而益勵, 至於積眞之多用力之久, 自然心與理相涵, 而不覺其融會貫通, 習與事相熟, 而漸見其坦泰安履, 始者各專其一, 今乃克協于一, 此實孟子所論心造自得之境, 生則烏可已之驗, 又從而俛焉孳孳, 旣竭吾才, 則顔子之心不違仁, 而爲邦之業, 在其中, 曾子之忠恕一貫, 而傳道之責, 在其身, 畏敬不離乎日用, 而中和位育之功, 可致, 德行不外乎彝倫, 而天人合一之妙, 斯得矣.

12) 같은 곳, 白鹿洞規圖 : 以上五圖, 本於天道, 而功在明人倫懋德業.

근거를 마련하는 데 있다는 의미로 이해된다. 10도 숙흥야매잠도의 말미에는 6도에서 10도까지의 '이상 다섯 도는 심성에 근원을 둔 것으로 요점은 일상생활에 있어서 공경스러운 마음을 지니는 것이다'[13]라고 하였다. 이는 실천의 주체인 인간의 심성을 밝히고 그 심성의 수양과 그 일상생활에 있어서의 실천을 강조한 것이다. 수양과 실천을 일관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이 敬이다.

다음으로는 내용 상의 구분이다. 이황은 제3소학도에 관한 설명에서 주희의 『대학혹문』을 인용하여 소학은 放心을 거두고 德性을 기르는 것, 즉 본원을 함양하는 것으로 이 본원의 함양은 灑掃, 應對, 進退와 같은 일상생활의 절차, 禮樂射御書數의 육예라고 하는 기본 교양의 습득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하여 대학의 의리를 살피고 사업을 실시하는, 즉 明德, 新民, 止於至善의 공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그런데 소학의 본원의 함양도, 대학의 명덕 신민의 공도 모두 敬을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다. 즉 敬을 말미암은 주체로서의 본원의 함양과 敬을 말미암은 주체의 올바른 실천이 바로 소학과 대학의 뜻이므로 소학과 대학은 통론해 보아야 하는 것이다.[14]

그런데 소학의 내용을 敬을 말미암은 일상 생활의 실천과 기본 교양의 습득을 통한 본원의 함양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실천을 통한 주체의 체득이라고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대학이 소학을 바탕으로 삼고 경을 말미암아 의리를 살피고 사업을 실시하는 공을 이루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주체의 체득을 바탕으로 경을 말미암아 주체를 실현해 나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이황은 소학과 대학은 하나이면서 둘이요, 둘이면서 하나라고 하였다.[15]

---

13) 같은 곳 : 以上五圖, 原於心性, 而要在勉日用, 崇敬畏.

14) 같은 곳, 小學圖 : 是以方其幼也, 不習之於小學, 則無以收其放心, 養其德性, 而爲大學之基本, 及其長也, 不進之於大學, 則無二察夫義理, 措諸事業, 耳收小學之成功, 今使幼學之士, 必先有以自盡乎灑掃應對進退之間, 禮樂射語書數之習, 俟其旣長而後, 進乎明德新民, 而止於至善, 是乃次第之當然.

15) 같은 곳 : 蓋小學大學, 相待而成, 所以一而二二而一者也.

그런데 이황은 小學圖와 大學圖만을 통합해서 파악하지 않는다. 그는 주체의 체득과 그 실천이라고 하는 小大學圖의 뜻을 바탕으로 성학십도의 나머지 팔도와 연관지어 전체적으로 의미의 구성을 꾀하였다. 이황은 제4도 대학도의 말미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 大·小學 두 설만 통합해서 볼 것이 아니라 위 아래의 여덟 그림도 다 마땅히 이 두 그림과 통합해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대개 위 두 그림은 단서를 찾아 확충하고 하늘의 도를 체득하여 도를 다하는 극치의 것으로서 소학 대학의 표준 본원이 되고, 아래 여섯 그림은 明善, 誠身, 崇德, 廣業을 힘쓰는 곳으로서 대학의 田地 事功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이란 것은 위 아래에 다 통하는, 착공하고 수효함에 있어서 다 마땅히 종사하여 잃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자의 말씀도 이와 같았고 이제 이 십도도 다 경으로써 주를 삼았습니다.[16]

소학과 대학의 뜻을 주체의 확립과 그 실천이라고 규정한 이황은 上二圖 즉 太極圖와 西銘圖는 (聖學의) 단서를 찾아 확충하고 하늘의 도를 체득하여 (인간의) 도를 다하는 극치의 것으로, 소대학의 표준 본원이 된다고 보았다. 이는 태극도를 주체의 존재론적 근거로, 서명도를 주체 실천의 논리적 바탕으로 삼은 것이라 생각된다. 제5도 이하 10도까지를 대학의 田地 事功으로 삼은 것은 제5도 백록동규도에서 제10도 숙흥야매잠도까지를 주체의 체득과 실천을 위한 수양, 그 체득과 실천의 장인 인간, 인간사회, 주체 실천의 내용 등을 이루는 것으로 본 것이다. 물론 이 십도를 일관하는 것은 경이다.

이황은 성학십도차에서 聖學에 大端이 있고 心法에 切要가 있다고 하였다. 太極圖와 西銘圖가 (聖學의) 단서를 찾아 확충하고 하늘의 도를

16) 같은 곳, 大學圖 : 章下所引或問通論大小學之意 說見小學圖下, 然非但二說當通看 竝與上下八圖 皆當通此二圖而看, 蓋上二圖 是求端擴充體天盡道極致之處, 爲小學大學之標準本原, 下六圖是明善誠身崇德廣業用力之處, 爲小學大學之田地事功, 而敬者又徹上徹下 著工收效, 皆當從事而勿失者也. 故朱子之說如彼 而今玆十圖皆以敬爲主焉.

체득하여 (사람의) 도를 다하는 극치의 것으로 소대학의 표준 본원이 된다고 하면, 太極圖의 太極과 人極의 관계는 바로 天道와 人道와의 관계이다. 이는 존재와 주체와의 관계이기도 하다. 태극도의 中正仁義는 바로 주체의 길인 人道였다. 인도를 체득하고 실천하는 자가 바로 聖人이었다. 이황의 心爲太極이라는 말은 人極이라고 하는 주체의 존재론적 근거가 태극에 있다는 의미이면서 동시에 인간 주체의 궁극적 실현 경지는 태극이라고 하는 우주적 존재 영역에 이르는 것이라는 의미도 된다.[17] 이황은 태극도에서 오직 敬해야만 寡欲할 수 있고 理가 밝아지는데, 과욕하고 과욕하여 無의 경지에 이르렀을 때, 비로소 성인이 될 수 있다고 말한『성리대전』태극도 註를 인용하였다. 그러므로 경은 인도의 체득과 실천의 관건이다.[18]

西銘圖에서 이황은 聖學은 仁을 구하는 데 있다고 하였다. 성학의 내용은 인의 체득과 실천이라는 말이다. 仁은 존재이면서 주체 자체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러한 뜻을 깊이 체득해야만 천지만물과 일체가 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19] 인간의 주체인 인을 확충할 때 성인이 된다 하므로 성학은 인간의 주체를 체득하고 실천하여 궁극적으로는 우주에까지 확충해나가 구현하는 것이다.

이황은 西銘考證講義에서 "橫渠는 또한 仁이란 비록 天地萬物과 一體라고 하였으나 그러나 필히 먼저 자기가 본원이 되고 주재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모름지기 物我一理가 상관되는 친절한 의미를 볼 수 있다."[20] 고 하였다. 이는 仁(도덕주체라는 의미가 강조된 리)은 마음의 체인 心靜의 상태에서는 本原이 되고 마음의 용인 心動의 상태에서는 主

17) 卷24, 答鄭子中 참조.

18) 聖學十圖 : 太極圖 : 敬則寡欲而理明, 寡之又寡, 而至於無, 則靜虛動直而聖學可矣.

19) 같은 곳, 西銘圖 : 蓋聖學在於求仁, 須深體此意, 方見得與天地萬物爲一體, 眞實如此處, 爲仁之功, 始親切有味, 免於莽蕩無交涉之患, 又無認物爲己之病, 而心德全矣,

20) 券7, 西銘考證講義 : 橫渠亦以爲仁者與天地萬物爲一體, 然必先要從自己爲本原主宰, 仍須見得物我一理相關親切意味.

宰가 된다는 의미라고 생각된다. 자기가 본원이 되고 주재가 되기 위하여는 마음이 경의 상태, 즉 경의 주재를 받아야 함은 물론이다. 이는 경을 통하여 경의 상태에 이르를 수 있음을 말해준다. 그래서 이황은 '경이란 머리와 꼬리를 관통하는 것이니, 진실로 능히 경을 지니는 방법을 알면 리가 밝아지고 마음이 정하여져서 격물을 하면 物이 나의 살핌을 벗어나지 아니하고 事에 응하면 事가 마음의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21] 고 말했던 것이다. 여기에서 心與理一이란 마음의 리가 밝아지고 마음이 정하여지는 理明心定과 같은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제3소학도 제4대학도에 대한 해설을 보면 이황은 소학을 聖學의 始로 大學은 聖學의 終으로 보고 있다. 경은 시종을 일관하는 마음의 자세이다. 이황에 있어 경이란 일심을 주재하는 것이요, 만사의 근본이었다.[22] 그런데 一心도, 一身도, 萬事도, 天地도 모두 理氣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므로 경을 지니는 것에 노력하여 나의 일심이 주재되면 나는 진정한 주체가 되고 따라서 주체의 바른 실천이 바로 만사의 바른 실천이 될 수 있는 것이었다. 그래서 만사의 근본이라 한 것이다. 나의 주체가 바로 서고 이를 바탕으로 격물치지에서 천하평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이루면 이것이 바로 修己而安百姓이며 篤恭而天下平인 것이다.[23] 여기에서 성학이란 바로 수기치인이라는 유학의 기본 목표의 연장선상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성학은 물론 하루도 경을 떠나지 않을 경우에 가능한 일이다. 왜냐하면 경이란 小大學圖뿐 아니라 태극서명의 上二圖, 그리고 백록동규도 이하 숙흥야매잠도를 다 통하는 것이니 공부를 집중하여 그 효과를 거두어야 하기 때문이다.

『聖學十圖』 중 第一太極圖, 第二西銘圖가 「성학십도차」에 보이는 聖

21) 卷28, 答金惇敍,: 敬者徹頭徹尾, 苟能知持敬之方, 則理明心定, 以之格物,則物不能逃吾之鑑, 以之應事, 則事不能爲心之累.

22) 聖學十圖, 大學圖 : 敬者, 一心之主宰, 而萬事之根本也.

23) 같은 곳: 蓋此心旣立, 由是格物致知, 以盡事物之理, 則所謂尊德性而道問學, 由是誠意正心, 以修其身, 則所謂先立其大者, 而小者不能奪, 由是齊家治國, 而及乎天下, 則所謂修己以安百姓, 篤恭而天下平, 是皆未始一日而離乎敬也.

學의 大端이라 한다면 第五白鹿洞規圖 이하 第十夙興夜寐箴圖까지는 心法의 切要에 해당된다 할 수 있다. 십법의 절요란 인간에 있어서 마음의 수양법의 요점이라는 말이다. 여기에서는 주로 실천의 주체인 인간의 내면적인 심과 성에 대해 밝히고 성학의 시종을 꿰뚫는 敬을 실천하는 터전 및 때를 나타내고 있다. 즉 이황은 마음 수양의 요점을 그 심과 성의 구조, 학문 수양법, 일상생활에서의 마음가짐새 등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마음은 한 몸의 주재이며 인간의 의식과 행동의 모든 계기는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마음이 그 본래성을 발휘하기 위하여는 持敬이 요구되었다. 퇴계는 持敬 내지 敬은 思와 學을 겸하고 動靜을 꿰뚫으며 內外를 합하고 顯微를 하나로 하는 길이라고 주장하였다. 이황의 「心無體用辨」에 의하면 動靜, 內外, 顯微는 心의 體用이었다.[24] 그렇다면 敬이 心을 주재한다는 것은 결국 마음이 마음다운 마음이 되는 것이었다. 결국 모든 것은 마음의 수양으로 귀결되는 것이다. 전통적 유학에서 말하는 修己治人도 이황은 持敬 내지 敬으로 일관된다고 여긴다. 이황이 지향하는 성학이란 주체의 체득과 실천이었다. 따라서 성학을 이루기 위해서는 마음의 존재방식이 출발점이 될 수밖에 없고, 바람직한 마음의 존재방식은 결국 경을 통하여 경의 상태에 이르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면 심성의 수양과 실천을 배열한 오도에서 십도까지를 검토하자.

이황은 제5도 백록동규도의 말미에서 학문이란 인간의 떳떳한 윤리에 근본하여 궁리역행함으로써 심법의 절요처를 얻기 위한 것이라 하였다. 즉 인간관계의 바른 인식과 실천을 통하여 주체로서의 심을 체득하고자 함이 학문의 목적이라는 말이다.

제6도 심통성정도는 앞에서 말한 道德的 측면에서의 心與理一을 나타낸 것이다. 이황이 목표로 하는 학문은 성학이었고, 성학의 핵심 내용은 심과 리가 하나가 되는 것이었다. 그것은 바로 천인합일의 길이었다. 한 개인을 이끌어가는 것이 心이고, 그런 의미에서 心이 한 몸을

24) 卷41, 心無體用辨 참조.

주재한다고 하였다면 한 몸을 주재하는 심을 주재하는 것, 즉 心이 바른 상태가 되도록 이끌어가는 것은 바로 敬이었다.

> 理氣를 겸하고 性情을 통섭하는 것은 心이다. 性이 발해서 情이 될 즈음은 한 마음의 機微요, 온갖 변화의 樞要이며, 선과 악이 나뉘어지는 분기점이다. 학자는 진실로 능히 持敬에 專一하여 理와 欲의 구분에 어둡지 않아야 하고, 더욱 이에 삼가서 마음이 발하지 않았을 때는 存養의 공부를 깊이하고, 발하였을 때는 省察의 습관을 익숙하게 하여, 참을 쌓고 오래 힘써 그치지 않는다면 이른바 精一執中의 聖學과 體를 보존하여 應用한다는 心法이 모두 밖에서 구하기 전에 여기에서 얻어질 것이다.[25]

이황은 도덕의 측면에서 마음의 수양을 가장 중요시 여기었다. 마음의 작은 움직임이 온갖 변화의 핵심이고 선악이 갈래지어지는 곳이며, 또한 마음가짐새는 성학 실현의 기초이자 목표이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敬으로써 마음을 삼가고 단속하여 마음이 발하지 않았을 때는 存養의 공부로써 마음의 體인 性, 즉 주체를 확립하고, 마음이 이미 발하였을 때는 깊은 省察을 통하여 마음의 用인 情의 바른 발현, 즉 주체를 바르게 실천하는 과정을 거듭하여 그 노력이 오래되면 주체가 완전히 체득되고 주체의 실천과 구현도 바르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한 몸을 주재하는 마음에 이처럼 敬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 그러므로 군자는 마음이 발하지 않아 고요할 때는 반드시 존양하여 그 체를 보존하고, 마음이 발하여 情意로 드러났을 때는 반드시 성찰하여 그 작용을 바르게 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마음의 리는 너무나도 크고 넓어서 잡을 수가 없고 아득하여 그 경계를 확인할 수 없으니, 진실로 경으로써 전일하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그 성을 보존하고 그 체를 세울 수 있겠는가? 이 마음이 미세하게 작용하는데 털끝만큼이라도 살핌에

25) 같은 곳, 心統性情圖 : 兼理氣統性情者 心也. 而性發爲情之際, 乃一心之幾微, 萬化之樞要, 善惡之所由分也. 學者誠能一於持敬, 不昧理欲而尤致謹於此, 未發而存養之功深, 已發而省察之習熟, 眞積力久而不已焉, 則所謂精一執中之聖學, 存體應用之心法, 皆可不待外求而得之於此矣.

> 어려움이 있다면 위험에 빠져버리고 바로 설 수 없게 되는 것이니, 진실로 경으로써 전일하게 하지 않으면 어찌 그 작용의 기미를 바르게 할 것이며 그 운용의 결과를 얻을 수 있겠는가?[26]

마음이란 그 본체의 측면에서는 광대하여 敬으로써 존양하지 않으면 체득하기가 쉽지 않고, 작용의 측면에서는 敬으로써 움직임을 성찰하지 않으면 악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많은 것이다. 그러므로 경으로써 주체의 체득과 실천을 이루어 내야 한다. 이 체득과 실천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바로 마음과 리가 하나가 된다는 의미이고, 이 경우 마음이 지니는 주재성은 물론 이기의 합인 마음에서 리가 지니는 것이었다. 그렇게 되려면 리가 능동성, 자발성을 지녀야 한다. 이황은 리가 極尊無待한 궁극적 존재이며 命物而不命於物하는 主宰者임을 말하고 있다. 그런데 命物은 理氣가 합하여 物을 규정하는 것이다. 물론 命物의 神用은 마음이 理氣合이므로 마음의 신묘한 작용인 것이다. 마음의 작용이 신묘한 작용이 되기 위하여는 마음과 리가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것은 결국 주체가 작용으로 드러날 때 마음 안의 理가 氣를 주재해야 하는 것이었다. 그것이 바로 사물을 명령하되 명령받지 않는 것이었다. 이황은 이것을 리의 기에 대한 主宰 運用으로 이해하였다.[27] 그런데 그 마음을 주재하는 것은 경이었다. 즉 마음이 지닌 주체의 활발발한 능동성의 구현(리발)은 바로 경이 마음을 주재할 경우에 가능한 것이었다. 그러므로 경이란 理氣의 합인 마음의 움직임을 리가 기를 이끌어가는 움직임으로 만드는 관건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경을 마음의 상태, '마음 가짐새'라고 한다면 경이란 마음가짐으로 마음을 이끌어 마음을 경의 마음가짐새로 만드는 것이다. 즉 마음

---

26) 續集 卷8, 雜著 天命圖說 : 故君子於此心之靜也, 必存養以保其體, 於情意之發也, 必省察以正其用. 然此心之理, 浩浩然不可模捉, 渾渾然不可涯矣. 苟非敬以一之, 安能保其性, 而立其體哉? 此心之發微而爲毫釐之難察, 危而爲坑, 塹之難蹈, 苟非敬以一之, 又安能正其幾, 而達其用哉?

27) 앞의 졸고, 142쪽 참조.

으로 마음을 이끌어 가는 것이다. 앞의 마음은 心與理一의 마음이고, 뒤의 마음은 심여리일이 되기 이전, 즉 理氣之合의 마음이다. 도심과 인심이라고 보아도 될 것이다. 이기가 합해 있는 마음은 그 기가 지니는 속성으로 항상 분열의 가능성이 있다. 즉 악으로 흘러갈 수 있는 인심의 영역을 지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황이 강조하는 인간 주체의 체득과 그 자발적 능동성의 확보, 그 실천과 구현을 위한 핵심은 작용의 실질적 주재자인 마음을 어떻게 수양하느냐가 문제가 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마음의 수양은 바로 已發時나 未發時나 경의 마음가짐새로서 마음을 이끌고 그것을 바르게 실현하는 것이었다.

이황의 경우에는 주체의 純善에 대한 확인 체득도 중요하였으나 보다 중요한 것은 그 순선을 어떻게 실천하느냐 실현하느냐이었다. 따라서 주체의 실천력이 요구되었고, 그것을 주체인 리를 포함하면서 주재력을 지닌 마음을 통하여 현실에 드러낼 수 밖에 없었다. 그러므로 리의 발이란 마음 안에 있는 리의 능동적 주체적 발현이어야 했던 것이다.[28]

경으로써 마음을 주재하여 순선인 주체를 체득하고 리발이라는 주체의 자발적 능동적 실현, 즉 순선인 도덕주체의 실천이 이루어지면 이것이 도덕적 측면에서의 심여리일이다. 그런데 심여리일이란 도덕의 영역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心與理一은 격물 궁리의 경우 앞에서 논의한 대로 理到로 이루어진다.[29] 심통성정도가 도덕적 측면에서의 심여리일을 설명하고 있다면 우주적 존재의 주체화와 주체의 우주적 전개를 설명하고 있는 것은 第七仁說圖이다.

이황은 주자의 "仁이란 천지가 만물을 낳는 마음이요, 사람이 그것을 얻어서 마음으로 삼은 것이다. 발하기 전에 사덕이 갖추어져 있는데 오직 인만은 네 가지를 다 포괄한다. 그러므로 혼연히 함육하여 통섭하지 않음이 없다. 이른바 생의 성이니, 애의 리니 인의 체니 하는 것이 이것이다. 발할 때는 사단이 드러나는데 오직 측은만은 사단을 관통하고

28) 앞의 졸고, 148~149쪽 참조.
29) 앞의 주 8)을 보라.

있다. ---전체적으로 말하면 未發은 체요, 已發은 용이다. 부분적으로 말하면 인은 체요, 측은은 용이다."[30]를 인용하여 인간의 주체인 마음의 존재론적 근거가 天地의 마음이요 그 내용은 仁이며, 인이 사랑의 理임을 밝히고 있다. 이어 또 주자를 인용하여 "천지의 마음에는 그 덕이 네 가지가 있으니, 元亨利貞이 그것인데 元은 이것들에 통하지 않는 곳이 없다. 그것이 운행하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차례로 되는데 여기서도 봄의 생동하는 기가 통하지 않는 곳이 없다. 마찬가지로 사람의 마음에도 덕이 네 가지가 있으니 바로 인의예지인데 인은 포괄하지 않는 것이 없다. 그것이 발하여 애, 공, 의, 별의 정이 되는데 여기서도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 관통되지 않는 곳이 없다. 대개 인의 도는 천지가 만물을 낳은 마음이 만물에 갖추어져 있어서 정이 발하기 전에 이 체가 이미 갖추어져 있고, 정이 이미 발하면 그 용이 다함이 없다. 진실로 이것을 체험하여 보존하면 모든 선의 원천과 백 가지 행위의 근본이 다 여기에 있지 아니함이 없다."[31]고 하여 인간 주체의 실천에 존재론적 근거를 마련하고 주체의 우주적 확대 가능성을 확보하고 있다.

第八 心學圖는 林隱 程復心의 心學圖와 心學圖說을 이황이 인용한 것이다. 그 중 주요한 내용은 마음은 한 몸을 주재하며 경은 한 마음을 주재한다는 것이다. 이황의 주재에 대한 생각은 이기가 합하여 명물하는 것처럼 주체의 활발발한 활동이다. 즉 경은 주체가 활발발하게 실천될 수 있도록 주체를 확립시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심학도를 보면 도

30) 聖學十圖, 第七仁說圖 : 朱子曰, 仁者天地生物之心, 而人之所得以爲心, 未發之前, 四德具焉, 而惟人則包乎四者, 是以涵育渾全, 無所不統, 所謂生之性愛之理仁之體也. 已發之際 四端著焉, 而有惻隱則貫乎四端, 是以周流貫徹, 無所不統, 所謂性之情愛之發仁之用也. 專言則未發是體, 已發是用, 偏言則仁是體, 惻隱是用.

31) 위와 같은 곳 : 又曰, 天地之心, 其德有四, 曰元亨利貞, 而元無不統, 其運行焉則爲春夏秋冬之序, 而春生之氣, 無所不統, 故人之爲心, 其德亦有四, 曰仁義禮智, 而仁無不包, 其發用焉則爲愛恭宜別之情, 而惻隱之心, 無所不貫, 蓋仁之爲道, 乃天地生物之心, 卽物而在, 情之未發, 而此體已具, 情之旣發, 而其用不窮, 誠能體而存之, 則衆嬋之源, 百行之本, 莫不在是

심과 인심을 나누어 人心의 측면에서는 已發時의 愼獨, 克服, 心在, 求放心, 正心과 같은 마음의 이발 상태에서의 遏人欲의 영역을 배열하고 그 결과로서 孟子의 四十而不動心을 배열하였다. 道心의 측면으로는 未發時의 戒懼, 操存, 心思, 養心, 盡心 등 存天理의 영역을 배열하고 그 결과로서 孔子의 七十從心을 배열하였다. 인심의 측면에서 알인욕을 통하여 부동심에 이르른다는 결론은 외물에 대한 배척과 이발시의 성찰을 통하여 주체를 체득 확립한다는 의미가 된다. 도심의 측면에서 존천리를 통하여 종심에 이르른다는 것은 존양을 통하여 주체를 실천하는 영역에 이르른다는 의미로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두 가지 수양공부 모두는 敬 한자로 통일될 수 있다. 경은 마음의 주재이기 때문에 인욕을 막고 천리를 보존하는 것은 모두 경의 공부인 것이다.

일반적으로 未發시에 천리를 보존하는 것은 주체의 체득이고, 인욕을 막는다는 것은 已發시 주체의 실천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신독, 극복, 심재, 구방심, 정심이라고 하는 已發 상태의 알인욕의 결과가 부동심이라고 하는 주체 체득의 경지이고, 도심의 영역에 배열된 未發시의 계구, 조존, 심사, 양심, 진심 등의 결론이 공자의 종심이라는 실천의 궁극경지라는 것은 바로 실천의 결과가 주체의 체득이고, 주체의 체득이 바로 실천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를 통일하는 원리는 마음을 주재하는 경이다. 이는 마치 學과 思가 상호發明하되 경이 그것을 관통하며, 대학과 소학이 하나이면서 둘, 둘이면서 하나로 규정되면서 경이 그것을 관철하는 것과 같은 이론 구조로 여겨진다.

심학도는 심통성정도와 같이 이론적 체계를 도시해 놓은 것이라기 보다는 공부의 次序를 도시해 놓은 것이다. 그렇다면 성학십도에서 제6심통성정도와 제8심학도는 표리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표에 해당하는 심학도 안에도 이러한 경을 통한 상호발명의 이론이 깔려 있는 것이다.

제9경제잠도와 제10숙흥야매잠도는 경의 실천 세목을 일상생활 속에

서의 공간적, 시간적 측면에서 늘어 놓은 것이다. 이황은 경제잠도에서도 敬이 聖學의 終始라고 말하였다. 숙흥야매잠도에서는 5도에서 10도에 이르는 부분의 결론으로 이상의 다섯 그림은 심성에 근원한 것으로서, 그 요점은 일용에 힘쓰고 경외를 높이고자 한 것이라고 하였다. 이는 마음의 수양은 일상생활 속의 구체적인 행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수양은 경을 지킴으로써 가능하다는 것을 주장한 것이다.

Ⅳ. 맺음말

이황이 지향하는 학문은 성학이었다. 그것은 바로 성인이 되는 학문이다. 『성학십도』가 선조에게 올린 것이어서 성왕이 되는 학문을 서술했다고 하나 사실 그 내용은 바로 성인이 되는 학문이라고 보아도 된다. 그런데 성인이 되는 성학을 이루기 위하여는 마음을 가다듬는 마음의 수양이 필요하였다. 그것이 바로 持敬이었다. 경의 태도를 지님으로써 '마음 가짐새'는 경의 상태가 된다. 경의 상태에 이르른 마음이 바로 진정한 주체이다. 비로소 진정한 주체를 체득한 것이다. 주체를 체득하여 그것을 관계 속에서 실천해나감으로써 격물궁리도 수기치인도 참천지지화육도 이루어진다. 주체의 관계 속에서의 실천도 물론 지경이 필수적으로 요청된다. 경이라는 마음가짐새는 성학의 종시며, 만사의 근본이며, 만선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경을 통한 주체의 체득, 그리고 관계속에서의 실천이 바로 인도의 실천을 통하여 천도에 합일한다는 천인합일의 길이다.

주체를 체득하는 일은 바로 일신을 주재하는 마음과 마음 안의 리가 하나가 되는 심여리일의 경지에 이르는 일이었다. 심여리일의 경지는 마음이 이와 기의 합으로 이루어진 이상 기를 어떻게 다루느냐가 관건이었다. 또한 그것은 주체가 기를 주재하여 이끌어가야 하는 일이었다. 그것이 바로 이황이 사단칠정론에서 순선인 주체를 실천하는 과정을 理

發而氣隨之로 주장한 이유이다.

마음가짐새가 경의 상태에 이르기 위하여 경의 태도를 지니는 것이 요구되었다. 그런데 이는 경의 마음가짐새로 마음을 이끌기도 하고 억제하기도 하여 경의 마음가짐새에 이르는 것이었다. 경은 과정이자 궁극적 목적이었다. 경의 마음가짐새를 지니고 실천해 나간다는 진지한 과정의 축적없이는 궁극적으로 주체의 체득도, 실천도 이룰 수가 없는 것이었다. 주체의 궁극적 체득과 실천은 일상생활 속에서 체득과 실천의 상호 발명을 끊임없이 되풀이해서 쌓아가야 이룰 수 있는 경지이기 때문이다.

경은 성학십도에서 통일의 논리이다. 마음과 리를 하나로 하고, 안과 밖을 합하며, 동과 정을 관통하며, 드러남과 은미함을 하나로 한다. 이는 바로 체와 용이 하나가 되는 것이다. 이 체와 용이 하나가 된다는 것은 바로 주체의 체득과 그 궁극적 구현의 통일이다. 이 통일의 바탕에는 언제나 경이라는, 통일을 가능하게 하는 통일의 원리이자 실천 목표가 자리하고 있는 것이다.

경을 '마음가짐새'라 규정한다면 경의 마음가짐새에 이르기 위한 구체적인 마음가짐새의 방법이 제시되어야 한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그 점을 다루지 못했다. 다음 기회에 정리하고자 한다.